

即扶餘 것은 圖面D와 같이 研面이 硯池를 向하여 傾斜되어 礫물이 流下하기 쉽게 되었고 慶州의 A, B二例는 輪廓이 두드러지게 만들어져서 礫물이 保存되도록 되었다.

註 ① 이와 同形의 破品이 慶州博物館에 所藏되어 있다.

② 이와 同形의 破片一個가 一九五九年頃 慶州 雁鴨池附近에서 出土되어 慶州博物館에 收藏되었다.

榮州 浮石寺 東方寺址의 調査

林 泉

一九五八年十一月 浮石寺 東方인 榮州郡 浮石面 北枝里 所在寺址의 雙塔 復原과 石佛二軀(國寶三四八號)를 浮石寺 慈仁堂으로 移置하는 作業 中原位置에서 新羅下代로 보이는 法堂址의 一部가 調査되었다. (地形 圖 參照)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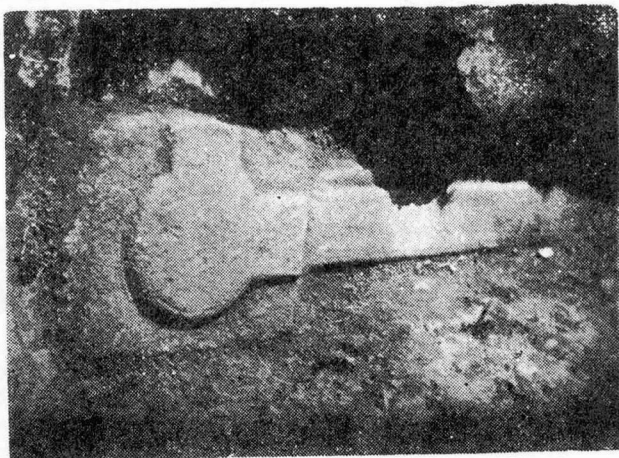
塔은 埋沒된 基壇部를 과내어 約 一·五m 높이를 둔우어 改築하였고 그 東北方에 자리잡고 있는 如來座像 二軀를 옮기기 위하여 이곳또한 八角臺座를 發掘하였는데 臺座 周圍에서 石佛과 同時에 造營되었으리라 믿어지는 建物の 礎石이 發見되었다. 一邊이 一·九尺되는 方石 위에 圓座가 있는 이 礎石은 左右의 長臺石과 連結되어 있었다. (礎기 동 礎石은 7字形) 그리하여 全貌를 把握할 수는 없었으나 大略 正面三間 側面二間의 平面을 가진 法堂으로 推定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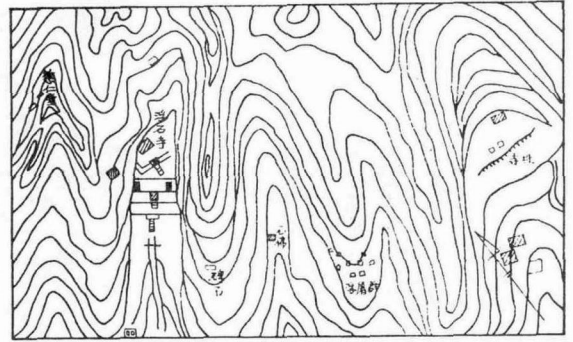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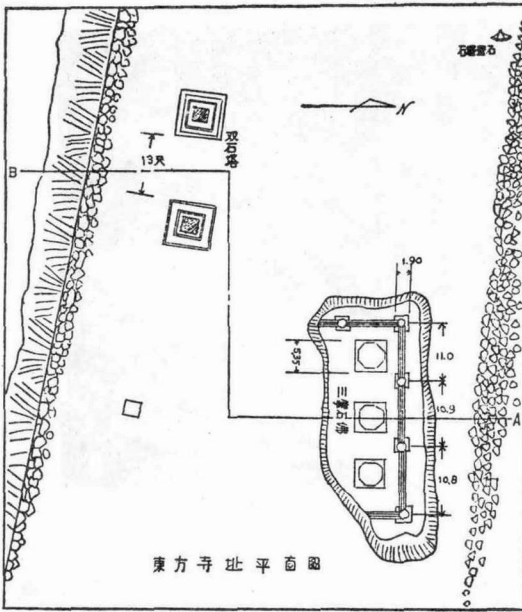
(寺址平面圖) 이곳 寺址에는 地勢에 따라 築造된 石築이 있어 寺域을 짐작케 하여 줌이 있으나 地表에 보이는 것 以外는 더 調査를 進行하지 못하였다.

八角臺座는 一邊 五·三五尺의 方形地臺石 위에 놓였는데 八角下臺石 各面에는 眼象內에 獅子를 高肉彫하였고 그 위에 伏蓮을 彫刻하였으며 竿石 各面에는 座佛을, 上臺石에는 仰蓮을 새겼다. 東端佛座는 地下에서 새로히 조사되었는데 下臺蓮花石만이 埋沒되어 있었고 頭缺의 破壞된 佛體만이 남아 있었다. (註)

石塔雙基中 西塔은 完全崩壞되어 있었고 東塔은 第一層蓋까지 남아 있었던 것을 各部塔材를 찾아서 復原하였는 바 모두 二層基壇上의 三層塔으로 新羅下代의 作品으로 推定되었다.

그 外에 寺址에서 石燈蓋石 一個와 石佛手破片과 蓮花文 수막새 土陶器





浮石寺附近地形圖



A-B 断面圖

片、青銅箸等이 收集되었다.

〔註〕浮石寺慈仁堂에 移安된 三軀座像中 光背가 없는 一座는 浮石寺東 崗 넘어의 俗稱 「藥師窟」에서 移置된 것이다.

劉淑의 望月圖

孟 仁 在

額子, 紙本着色, 二七·五×三三·八 種

全盤弼氏藏

(劉淑 字善永 一云野君, 號蕙山, 漢陽 人 純祖二十七年丁亥生, 書員, 司果 卒 年四十七)

그림은 今年 四月 五日부터 七月 二日까지 國立博物館에서 主催한 〈李朝人의 生活 風俗圖展〉에 出陳되었던 것인데 淡靑彩 主調의 界畫이며 畫面의 左下隅에 〈望月〉 두 字를 行書體로 墨書하고 〈劉〉〈陽文〉〈淑〉〈陰文〉이라 두 方印을 눌러 글맏고 있다. 이 落款과 對角線으로 相稱되는 畫面의 右上隅에는 보름달인듯한 明月이 떠 있어 이 그림의 對角線 布置를 더욱 緊密히 하고 있다. 畫面은 高臺위에 南向한 建物을 中心으로 中秋佳節의 막 떠오르는 달을 구경하는 場面으로 보이는 데 이 그림은 手法上 자를 援用하여 建物의 細部를 그린 界畫가 갖는 特性과 畫者의 視點을 높이는 俯瞰法의 두가지 顯著한 特性을 지니고 있다.

界畫는 古代로부터 宮室, 書院을 中心으로 宮室, 또는 國家的인 諸 儀式圖를 그리는 데 따라 發達한 畫法으로 界尺을 使用하여 建物 器用의 細部를 그리는 技法인 만치 建築的으로 正確하며 建築內의 空間을 잘 나타내는 것을 높이 쳐주었고 畫者의 技術的인 熟練이 必要하기 때문에 自由롭고 漂逸한 意志의 表現을 尊重하는 士夫畫의 立場에서는 最下級의 繪事로 처왔다. 中國에 있어서는 初唐의 閻立德 兄弟가 이 方面에 優秀